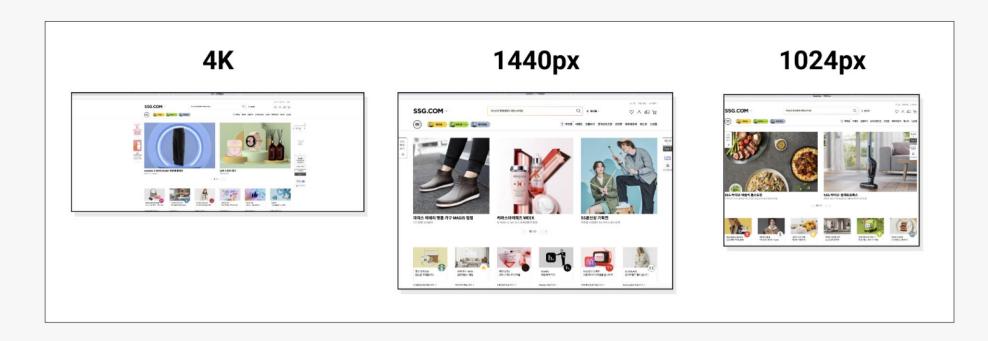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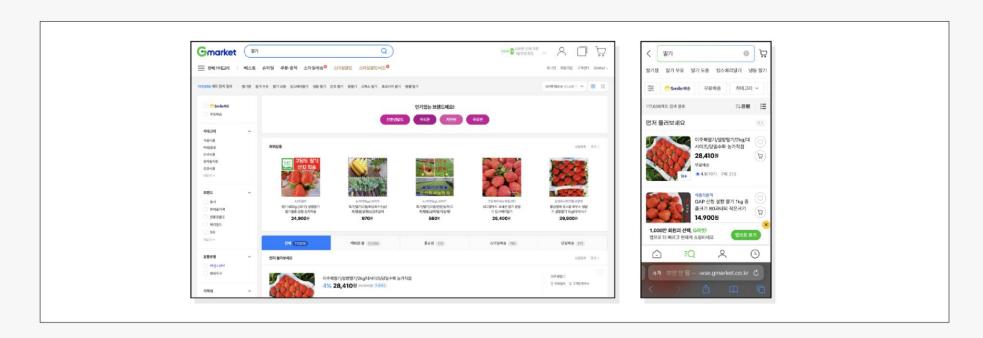
매체별 구성요소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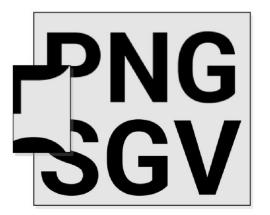
1) 반응형에 대한 고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는 사양과 크기가 다른 모니터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웹사이트를 보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기기와 해상도에 맞춰서 최소 사이즈를 정하고 중간, 최대 사이즈를 고려해 사용자가 접속하는 크기에 맞춰 저절로 바뀌도록 브레이크 포인트(특정 레이아웃, 화면 크기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해서 1920px에서 보일 때와 최소 사이즈인 1024px 사이즈의 화면 크기에서 각자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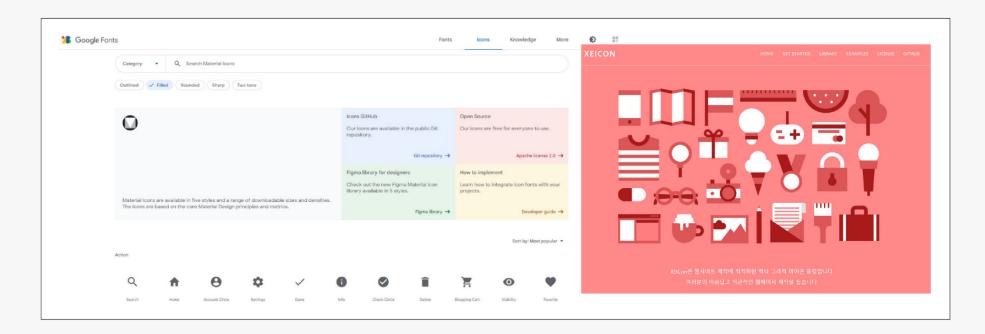
2) 사용자가 접근하는 기기에 대한 고려

반응형 사이트는 대부분 PC로 접속했을 때 웹사이트와 모니터 화면의 다양한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할 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C용 최소 브레이크 포인트의 웹사이트가 그대로 모바일에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있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이용이 아닌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모바일에서는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앱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3) 로딩 시간에 대한 고려 -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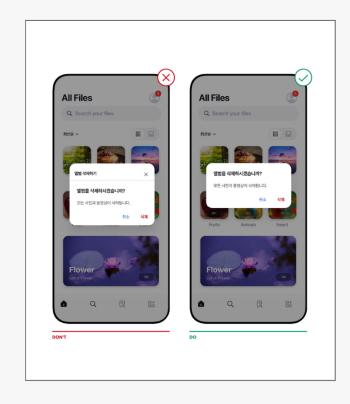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화질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고화질을 사용한다면 웹사이트 접속 시 로딩 시간이 길어지거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 웹사이트 모니터링 기관 핑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웹페이지의 로딩 시간은 2초가 될 때 9%가 이탈하고, 3초를 넘으면 이탈이 급격히 늘어나며 5초가 지나면 38%가 이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개발을 통해 로딩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일과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 저장 형식과 크기로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로딩 시간에 대한 고려 - 폰트 아이콘

아이콘을 모두 이미지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폰트 형식으로 하나의 글꼴에 아이콘을 넣어두고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SVG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벡터 파일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불러오는 개념으로 아이콘의 크기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폰트 아이콘 으로 로딩 시간이 단축되지만, 구형 브라우저 지원이 불가능할 때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용 웹디자인 🖈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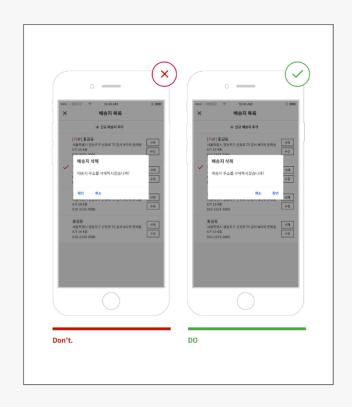
모바일에서는 모달 상태의 경고창 alert상단 우측 "X"버튼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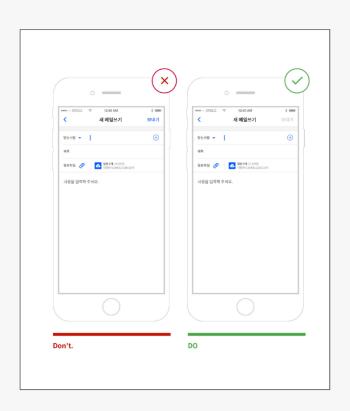
풀프레임 대화창Dialog에 "X"버튼 (닫기 버튼)은 왼쪽 상단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기기용 웹디자인 🖈



세번째,

긍정적인 액션 버튼은 우측에 배치합니다.



네번째,

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 버튼보내기/로그인)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활성화를 권장합니다.

모바일 기기용 웹디자인 🖈



다섯번째,

입력 내용에 맞는 키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